

고,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에 북한의 교육제도, 남북 교육통합, 학교 통일교육 기법 등에 대한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교사들이 한반도 주변정세,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 통일환경과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커리큘럼도 보강하였다.

특히, 교육계의 여론 주도층인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들에게는 통일 교육의 파급효과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관리자 맞춤형 커리큘럼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통일연찬을 실시함으로써 대북정책, 북핵문제, 북한인권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대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청소년 통일교실’은 탈북 청소년과 함께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발표·토론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2009년이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통일을 가상한 ‘모의국무회의’를 열어 통일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성찰하도록 하였다.



대학생 통일체험연수

### 나. 사회·공무원 통일교육과정

사회 통일교육과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종교계·여성계·통일관련 단체 회원, 향군 강사, 재외동포 등 각계각층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2009년도에는 2008년(1,878명)보다 12% 증가한 총 2,096명이 참여하였고,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1,340여 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참가자들의 직능별 특색을 고려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 “민간 남북경협 실태와 추진사례”, “북한 문화예술의 이해”, “북한이탈주민 상담기법”, “사회복지분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등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였다.

한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특히 남북경협 관계자, 정훈장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신규 임용 수습 사무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통일교육과정도 운영하였는데 2009년도에는 총 1,585명이 이수하였고,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370여 명이 참가하였다.

### 다. 재외동포 통일교육

재외동포가 조국애와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사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재외동포를 국내로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미국 시카고, 시애틀,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 현지 교포사회 지도층 인사를 초청한 가운데 세미나를 겸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남북관계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켰다.

또한 11월에는 재일본 민단간부를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단사회가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해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 라.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2000년대에 들어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 차원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통일교육원에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을 개설하고 이후 2009년(제4기)까지 총 135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10년에는 제5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통일미래 지도자과정은 중앙과 지방의 과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들이 참가하는 1년간의 장기교육과정이다.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등 크게 4개의 분야별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강의, 정책세미나, 현안문제 토론회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통일정책」 분야는 ‘통일에 대한 비전의 제시’, ‘통일정책의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 ‘분야별 교류협력 이해’로, 「북한이해」 분야는 ‘북한 연구방법과 배경지식’, ‘북한의 정치행정’, ‘북한경제 및 산업’, ‘북한사회 및 문화예술’로, 「국제관계」 분야는 ‘국제정치와 한반도 주변정세’, ‘주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변국 외교현안', '동북아 협력체제와 한반도' 로, 「통일과정」 분야는 '국가통합이론', '분단국 통일·체제 전환사례', '통일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 현장·안보현장 방문 등 체험학습, 구사회주의 국가 체제전환 해외사례연구, 개인별 정책과제 연구, 교양 강의, 외국어 및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정도 편성되어 있다.

### 마. 방북 안내교육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북한방문 예정자들을 위해 북한지역 방문에 필요한 절차와 준비사항, 북한 체류시의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는 방북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북 안내교육에는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정례교육, 방북 예정자 요청시 현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 남북 출입사무소에서 출경 전 실시하는 영상교육 등이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방북예정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방북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방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방북 안내교육 내용 중 '방북 유의사항' 부분을 확대하고, '방북시 대화와 행동에 대한 요령' 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련 사항을 강화하였다.

2009년도에 방북 안내교육을 받은 인원은 총 6,762명이며, 2010년 6월 말 현재 2,970여 명이 방북 안내교육을 받았다.

## 2. 사이버 통일교육 강화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

재하는 한편, 교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2000년부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겸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http://www.uniedu.go.kr>)를 개설하여 다양한 사이버 통일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09년에는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다양한 통일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2005년부터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웹진(<http://zine.uniedu.go.kr>)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이벤트도 개최하였다.

2009년에 총 9,300여 명이 사이버 통일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0년 6월말 현재 1,620여 명이 이수하였다.

#### 가. 사이버 통일교육 강좌 운영

통일교육원은 2003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으로 인가를 받은 이래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통일교육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2004년부터 30시간(2학점)의 단기과정을, 2006년부터 60시간(4학점)의 장기과정을 편성·운영하였다. 2009년도 총 이수자 수는 3,477명으로, 전년도보다 11.4% 증가하였다. 이 중 장기과정은 6회 운영에 645명이 이수하고, 단기과정은 7회 운영에 2,832명이 이수하였고, 2010년에는 4월말까지 콘텐츠 개편을 추진, 5월부터 6월말까지 570여 명이 이수하였다.

사이버 교육의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장·단기과정 이수자들이 남북 분단 및 교류의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현장 체험교육은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판문점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특강 등을 듣는 다양한 프로그램

## 교원 사이버통일교육 홈페이지

램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장기과정 교원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도 병행하였다. 집합교육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특강,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9월 공무원 대상 원격통일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2007년도에 시범실시를 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점을 인정한 교원과는 달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가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 공무원 사이버통일교육 홈페이지



공무원 사이버통일교육은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의 사회문화와 남북통합의 이해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기씩 총 9기를 운영하였으며, 총 4,48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2010년에는 4월말까지 콘텐츠 개편을 추진, 5월부터 교육과정을 개시하여 6월말까지 1,050여 명이 이수하였다.

그동안 방북 예정자들이 방북교육을 받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 1월 사이버 방북교육과정을 개설한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총 8,190여 명이 이수하였다.

## 나.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정부는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와 통일의지 함양을 위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04년 1월부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청소년통일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대상 「통일교실」 및 초등생 대상 「한마음학교」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는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차원에서 「통일교실」 및 「한마음학교」 콘텐츠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또한 초·중·고 수준별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통일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사이버 방북 안내 교육 홈페이지

한편, 인터넷 잡지인 통일교육원 웹진(Unizine)을 매월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웹진은 교장·교감·교사 등 정책고객 4만 1,000여명에게 PCRM(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학계인사 등의 ‘통일칼럼’, 통일관련 다양한 주제를 만화로 표현한 ‘통일 카툰’, 통일교육 연수 참가 소감문인 ‘참여마당’, 탈북 대학생들의 국내 생활 적응기인 ‘평화열차’, ‘통일소식’, ‘자료마당’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사이버 이벤트 기획 추진

2009년에는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5월에는 통일관련 퀴즈를 보고 활을 쏘 정답을 맞추는 「사이버 통일교육용 양궁게임」을 개발하여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11월에는 통일 애니메이션인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과 ‘한마음학교’ 를 보고 게시판에 느낀점을 쓰는 「통일 애니메이션 보고 감상평 쓰기」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전국 초·중·고 학생 총 9,069명이 참가하였다.

‘헤미의 행복통일한국’ 은 주인공 헤미가 가상의 통일한국 모습을 체험한 후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는 줄거리이며, ‘한마음학교’ 는 북쪽에서 온 친구들이 학교생활, 컴퓨터 배우기 등 일상의 에피소드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친구로 다가선다는 내용이다.

사이버 이벤트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이버 통일교육용 양궁게임

**통일교육원**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 통일애니메이션 보고 느낀점(감상평) 쓰기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낀점 작성하기

**참가대상** 초등학교  
**참가기간** 2009.11.9(월) ~ 11.22(일)

**지역애니메이션**  
 『한마음학교』 (1~7차시 모두)

**작품접수**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느낀점 작성 및 접수  
 『청소년 통일배움터』 이벤트 코너에서 직접 작성(산문, 800자 내외)

**입상자 발표**  
 2009. 12.1(화)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게재

**시상내용**  
 대상, 금상, 은상, 참가상 순위별 문화상품권 지급

☎ 문의처: 02)901-7171(강령실사무관), ysk7@unikorea.go.kr

**이벤트 참여하기 >**

\*본 이벤트는 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내에서 입력하신 정보는 주니어아이에는 일체 저장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통일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관리 및 보호됩니다.

통일애니메이션 보고 느낀점 쓰기

## 제3절 통일교육 지원

### 1.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앞으로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 통일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실시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 없다’

라고 대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인식이 부족한 이유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 현장 교육운영 지도자들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국가·사회에서의 청소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 미흡, 객관적이면서 유익한 내용의 교육자료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국가관과 통일관,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 지침서』와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의 내용을 개편하고 발간 부수를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청소년 대상 체험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평화통일대행진」도 기획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미래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교육청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관리자와 교사 등 일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제고되도록 하였다.

#### 가. 청소년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

청소년들이 올바른 통일의식 및 통일 관련 기본 소양을 함양함은 물론, 통일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9년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통일교육 강화 T/F」를 통일교육원 내에 구성·운영하였다.